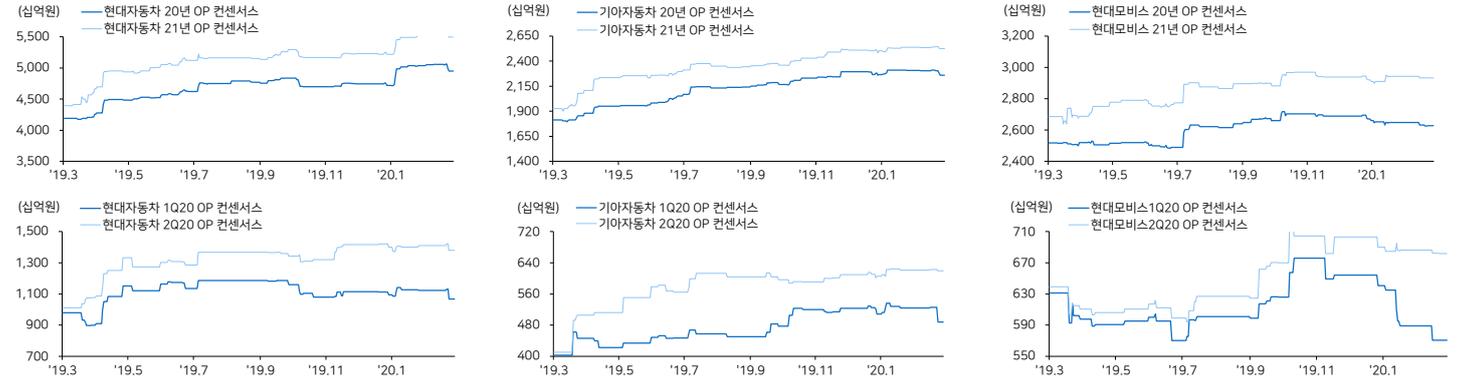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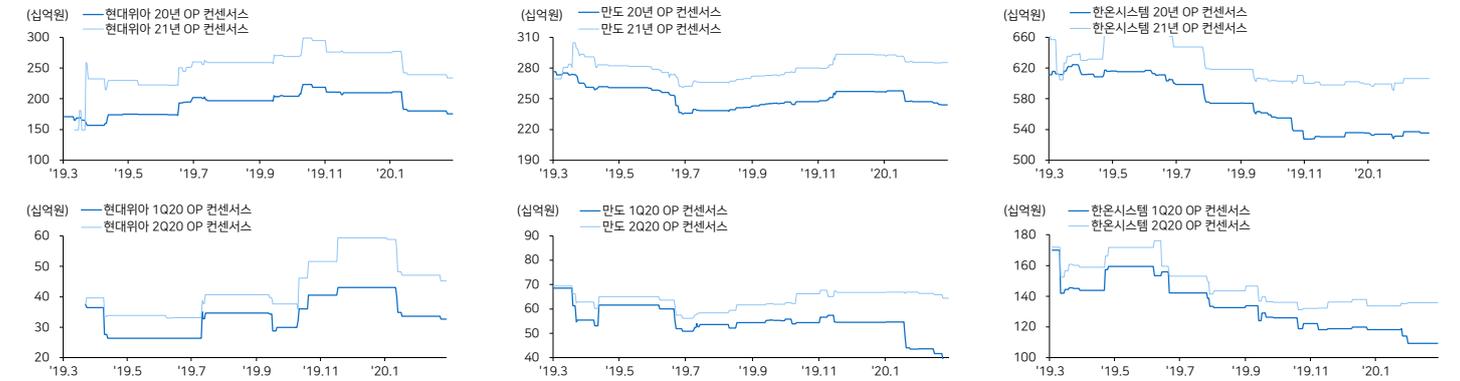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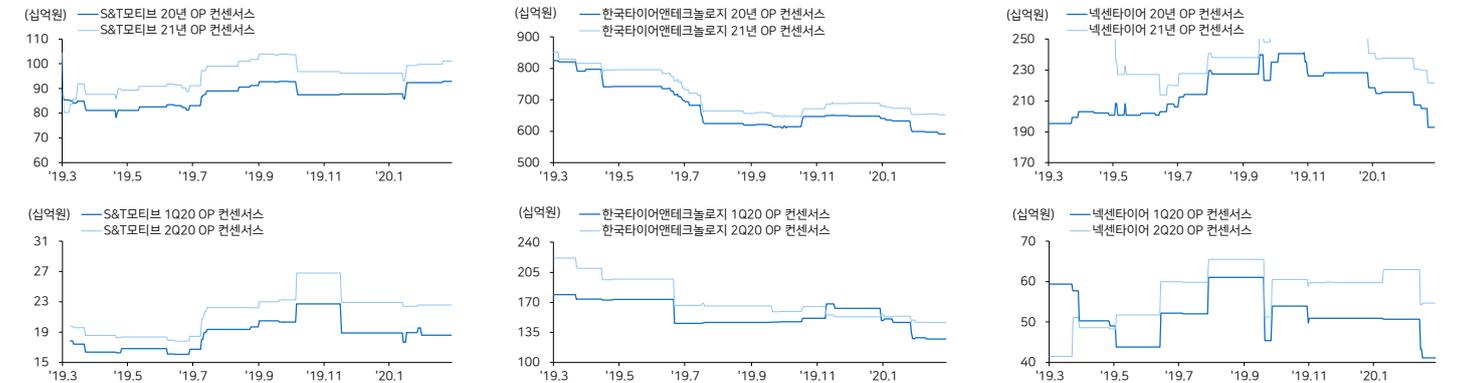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무디스 "현대차·기아차 신용등급 강등 전망" (시그널)

현대차와 기아차의 글로벌 신용등급이 조만간 강등될 가능성이 커짐.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소비 수요에 타격이 큰 탓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https://bit.ly/2UFrhKl>

현대모비스 세계 첫 루프에어백...美교통안전국 안전성 인정 받아 (동아닷컴)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루프 에어백이 NHTSA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음. 현대모비스는 NHTSA의 '승객의 루프 이탈 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루프 에어백의 안전성이 미국 정부, 산업계, 학계 등에 공유했다고 26일 밝혔다. <https://bit.ly/2QP1ZC5>

자동차산업 붕괴위기에 중국 '신차 억제 정책' 완화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자동차 산업이 꺾일적인 수준의 타격을 받은 가운데 중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대거 옴입 방침을 위해 도입한 신차 차량 억제 정책을 부분적으로 완화. <https://bit.ly/335CFrj>

"美 자동차 파산업체 나올 것" ... 포드 신용등급 '경크'로 강등 (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자동차 판매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악화할 것이고, 미국에선 일부 업체가 파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https://bit.ly/33UvcY3>

기아차, 전기차 구동 서비스 '기아플렉스 EV라인' 론칭 (스포츠투데이)

'기아플렉스 EV라인'은 월 요금 87만원을 지불하고 니로 또는 쏘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월 1회 72시간 대여할 수 있는 기아차 최초의 전기차 구동 서비스. 기아차는 26일부터 서비스를 실시. <https://bit.ly/3dutWPH>

한국타이어 조현식 부회장의 '반성문'... 주주들에 통합가 (사사워크)

오너일가의 구속 및 기소와 거둬들인 실적 부진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 놓인 한국타이어그룹이 '주주 달래기'에 나선. 일련의 사태에 대해 통렬한 반성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 구체적인 주주가지 제도 방침을 제시한 것. <https://bit.ly/2Ujx2yC>

"美 외출금지령에 자동차 판매 80% 줄 것" (IT조선)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외출금지령을 내리면서 미국 내 차 판매가 80% 이상 감소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JDM파워는 다음 주는 제약으로 인해 자동차 판매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https://bit.ly/39mKkFh>

Ford to restart some plants in April; Toyota, Honda, others extend closings (AN)

Ford said it will reopen some key truck factories by mid-April while Honda and Toyota, citing slumping sales, extended shutdowns at North American factories. <https://bit.ly/330H11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